

산학리뷰

2004년 1월 / 제15권 제1호 (통권 153호)



2004. **1**

CONTENTS

- 2 • 산학칼럼 / 지방분권화 시대에 우리(URI)가 가야 할 길 4 • 이달의 쟁점 / DKIST의 비전과 과제
 8 • 경영 · 기술정보 / 2004년 주요세법 개정내용 14 • 제164차 월례세미나 / 통화정책의 과제
 18 • 대덕단상 / 미국의 대학과 전문대학의 공생 22 • 짧은 상식, 긴 여운 / 인생을 두 배로 사는 인간, 아찔형 혹은 저녁형?
 24 • 만나봅시다 / 김정길 매입신문 부사장 27 • 연구원 소식 28 • 회원동정 30 • 신착도서목록 31 • 연구원 소개 및 회원가입 안내





지방분권화 시대에 우리(URI)가 가야 할 길

정성진 | 본원 이사장 (국민대학교 총장)

200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세월의 흐름은 그 변화 자체보다도 이를 의식하고 활용하는 인간의 의지여하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질서나 혼돈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의 정치상황과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경기와 계층이 양극화되고 있는 경제현상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하지만, 사회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생적 개혁의 목소리와 지방분권3대 특별법의 국회통과에 따른 신지방시대의 개막은 우리 지역민들에게 새로운 각오와 도전의 지를 가지게도 해줍니다.

지역 산·학·연·관을 연결하는 공동의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영 혁신을 지원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여론을 선도하는 역할을 자임해온 우리 산학경영기술 연구원은 지난 한해에도 영·호남 합동세미나를 포함한 12차례의 월례세미나 개최와 연구 프로젝트 수행 및 연구총서의 발간 각 1회, 그리고 한달도 거름 없이 봉행해온 이토회 행사 등을 통하여 지역산학협동연구의 중추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왔다고 자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성과는 미흡한 여건 속에서도 꾸준한 관심과 애정으로 연구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참여해 주신 학계와 기업 및 유관기관 회원 여러분의 협조 덕분이라 생각하면서 이를 먼저 깊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04년의 경제, 정치 및 사회적 상황도 반드시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화가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거품경제 수축의 후유증과 제조업기반 침하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업판도의 변화조짐이 보이는가 하면 사회갈등은 더 첨예화되는 느낌마저 있습니다. 정치자금의 투명화를 위시한 일련의 정치개혁작업은 국민의 기대를 외면한 채 담보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국정목표로 제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 라는 국정아젠다를 설정하고 정책로드맵만 제시한 채 그 구체적인 집행력에서 아직 국민일반의 회의적 시각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나마 일말의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 지난 연말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등의 3대 지방분권법이라 할 수가 있을 것

지방분권3대법의 시행까지 염두에 둔다면 새해 우리 산학경영기술연구원의 운영 방향은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이 두어져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첫째, 지방분권시대를 선도하는 산학협동의 두뇌역할을 보다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다양한 산학협동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내부역량 및 연구기능의 지속적 강화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향설정이나 운영목표도 우리 산학경영기술연구원의 주체인 회원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함이 자명합니다.

입니다. 물론 아직 시행령도 제정되지 않은 마당에 얼마나 이들 법이 실효성 있게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민의 소외감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더 두고 보아야 마땅하겠지만, 이들 지방분권3대법의 시행까지 염두에 둔다면 새해 우리 산학경영기술연구원의 운영 방향은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이 두어져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첫째, 지방분권시대를 선도하는 산학협동의 두뇌역할을 보다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지역간 경제력의 격차와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과도한 중앙집중이 가져온 국가균형발전의 저해현상에 관하여는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으며 오늘날 지역산업의 육성이 국가적 과제라고 하는 점에 관하여도 아무런 의의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산학경영기술연구원은 지방분권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시행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여러 문제점과 고려되어야 할 경제·사회적 요인들에 관하여 진지한 논의와 연구를 해야 할 소명의식을 당연히 가져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지역산업 육성의 여론을 선도하고, 지역특화산업 내지 전략산업 육성의 이론적 토대와 사례를 제공, 발굴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환경과 문화를 고려한 생태산업단지 조성의 문제에도 생각이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다양한 산학협동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내부역량 및 연구기능의 지속적 강화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3여 년 동안 우리 연구원은 괄목할 만한 발전을 거듭해왔지만 아직도 산학협동프로그램이 비교적 단순하고 하부구조도 취약한 편에 속합니다. 학계회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가를 유도하기 위하여서도 연구기능의 강화는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인적, 물적기능 강화가 단시일 내에 어렵다면 외부연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일단의 보완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향설정이나 운영목표도 우리 산학경영기술연구원의 주체인 회원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함이 자명합니다. 회원 상호간의 인간적 유대도 더 강화하고 회원세의 지속적 확장도 도모하면서, 지역산학협동연구의 전범으로 평가받는 우리 연구원이 새해에도 전향적이고도 생산적인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훌륭한 회원여러분의 각별한 애정을 당부 드립니다.

새해에도 회원 여러분의 학문적 업적과 기업의 운세가 더욱 흥왕하고 공·사의 모든 일이 뜻대로 성취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권업 | 계명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DKIST의 비전과 과제

지난해 11월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이하 DKIST)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동남권 R&DB(연구개발 및 사업화)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할 연구기관 설립활동이 본격화 될 예정이다. 연구개발조직의 수 기준으로 전국의 15.6%에 불과한 동남권 산업체와 대학의 입장에서는 획기적인 일임에 틀림없고, 지역혁신역량 강화에 몸부림쳐 온 지역민에게는 굳게 묶였던 매듭이 풀리는 기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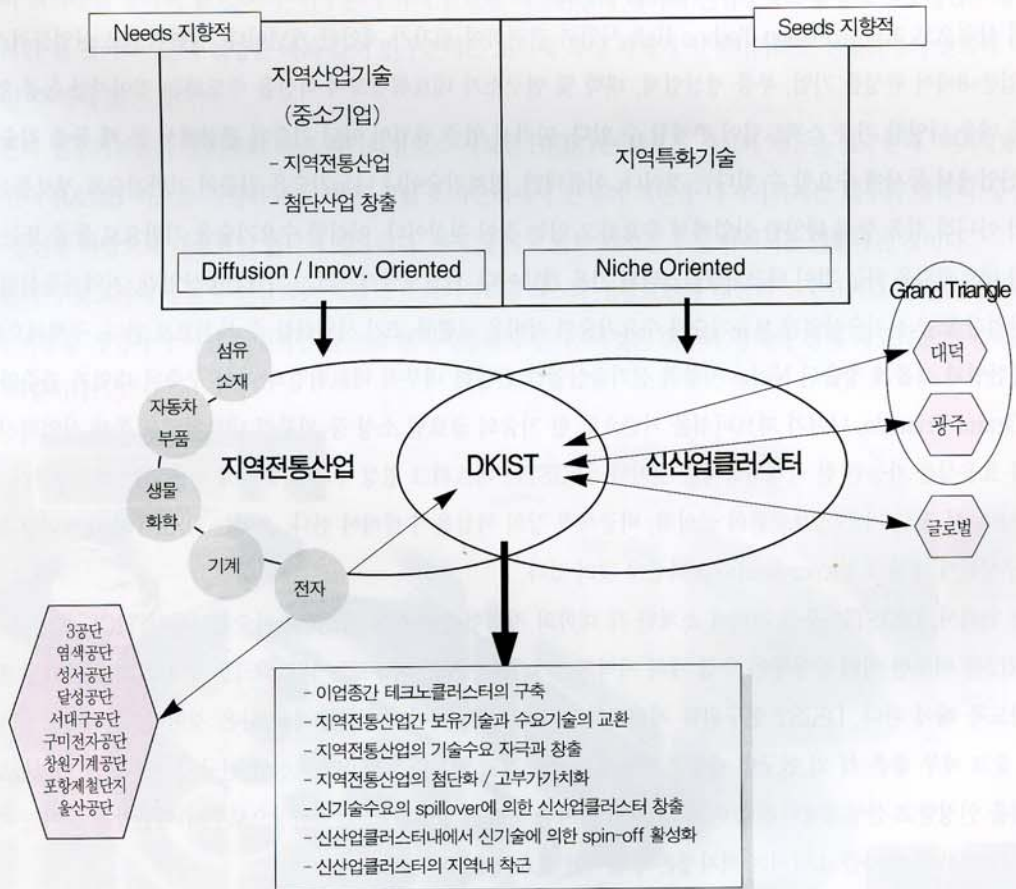
DKIST는 현재 대구광역시에서 적극 추진 중인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계획의 핵심이자 대구·경북지역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체제(RIS) 구축의 출발점으로 설정된 사업이다. 또한 DKIST는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나 KAIST(한국과학기술원) 등 과학기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가주도 연구기관과는 달리 지식기반 경제와 지방분권화란 글로벌 트렌드에 맞추어 대구·경북지역의 현실과 지역혁신전략에 기반을 둔 새로운 개념의 연구기관이다.

한 지역의 혁신역량은 단순히 R&D 투자와 산업의 집적화 등의 투입요인 뿐만 아니라 산업 생태계적 관점에서 사회·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혁신클러스터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 이는 산업집적지역이 비집적지역에 비해 지역혁신력이 높다는 이론적, 실증적 연구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혁신클러스터는 특정영역에서 공동성(commonality)과 상보성(complementarity)에 의해 상호 연관된 기업 및 기관들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집단 혹은 공동 입지를 통해 이득을 얻은 산업들의 지리적 집중을 의미한다. 1세기 전 경제학자 Marshall에 의해 국지화 경제에 기반한 산업지대로 피력된 바 있던 클러스터는 대기업들에 의한 수직적 통합과 규모의 경제가 지배하는 산업시스템, 즉 포드주의(Fordism)가 문제가 되고 있는 오늘날, 대안적 시스템을 모색하는 정책입안자들에 의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개념이다.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시스템과 기술개발, 그리고 수직보다는 수평적인 기업간 네트워크는 지식의 창출과 공유 및 지방분권화란 세계적 추세와 맞물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혁신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식창출과 기술 혁신을 주도할 역량있는 연구기관이나 대기업의 존재가 필요조건으로 등장한다. 이런 점에서 DKIST의 존재의 이유가 있다.

필자의 관점에서, DKIST 설립의 비전은 '지역산업 경쟁력의 향상' 과 '테크노클러스터의 구축' 두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DKIST는 '지역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신산업클러스터 조성의 선도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는 섬유, 전자, 자

동차부품, 기계 등 동남권 지역전통산업의 활성화를 매개로 신산업클러스터를 창출하는데 중심점이 되어 한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국가정책에 의한 특정지역에 특정 신산업유치와 집중적인 투자배분은 지역간 기회불균등 문제와 지역 내 기존산업과의 갈등을 야기하는 것과는 달리, DKIST는 지역전통산업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산업발전비전의 구현을 위한 R&DB조직이 되어야 한다. 지역산업 현장과 괴리된, 연구를 위한 연구나 지역이 감당할 수 없는 대규모의 원천 기술 개발목표는 모처럼 유치한 DKIST를 모래위에 세운 비싼 집으로 만들 뿐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전통산업에 신 기술을 접목시키고 보유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기술의 복합화와 융합화 및 제품화를 추구하는 시장지향형 기술의 개발이 1차적인 목표가 될 수 밖에 없다. 지역산업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2-3등 기술을 신기술, 이를테면 IT, BT, NT, MT, ET 등과의 융합을 통해 1등 기술로 전환하는 작업들은 DKIST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과제들이다.

〈그림〉은 DKIST가 수행해야 할 기술개발의 두 가지 과제를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전통산업이



〈그림〉 DKIST의 과제



기존의 연구기관들과 뿌리부터 다른 패러다임으로 시작한 DKIST는 새로운 사고와 행동을 요구한다. 비록 DKIST가 동남권의 R&DB 허브를 지향하고 있지만, 설립 초기단계에서 안정적 기반을 다지기까지는 대구와 경북이 상생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대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수요하는 Needs 지향적 기술의 공급과 성공사례의 개발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적 근시안과 타성을 일깨우고, 고양된 기술혁신 욕구에 의해 신기술산업 창출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임베디드 S/W나 SoC와 같은 지역특화 기술개발에 집중하여 신산업클러스터 구축의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의 성장축의 다양화를 도모해야 한다.

DKIST 설립의 두 번째 비전은 '테크노클러스터의 구축'으로 요약된다. 테크노클러스터는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의 보완적 사업으로 제안된 Fusion Techno Belt 사업과 관련하여 필자가 제안한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산업클러스터는 동종 업종내에서 완성품 기업, 부품 생산업체, 대학 및 연구소가 네트워킹하여 혁신을 주도하는 것이지만 동종 업종내에서도 매우 다양한 기술 스펙트럼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업종 관점이 아닌 기술의 관점에서 볼 때 동종 기술을 다양한 산업에서 동시에 수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정보기술이나 나노기술은 일종의 기반기술로 정보통신산업 뿐만이 아니라 섬유 등의 다양한 산업에서 수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수요기술을 기반으로 동종 또는 이종 산업간 네트워킹을 하는 것이 테크노클러스터의 기본 개념이다. 테크노클러스터는 지역전통산업간, 지역전통산업과 신기술산업간 또는 신기술산업간 보유기술과 수요기술의 저비용 교환과 조기 사업화를 주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지역전통산업과 새롭게 창출된 Niche 지향적 신기술산업간 긴밀한 내부적 네트워킹과 이미 구축된 대덕과 광주와의 이른바 Grand Triangle, 나아가 파트너쉽을 기반으로 한 기술의 글로벌 소싱 등 외부적 네트워킹을 통해 산업혁신의 유효성과 효율성을 가능한 한 극대화하는 것이다. DKIST는 네트워크 형성 주체들에 의해 창출되는 테크노클러스터의 플랫폼으로서 지식/기술/정보교환의 공식적, 비공식적 장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요체는 DKIST의 네트워킹과 네트워크 구성원에 대한 조정(coordination) 역량이 달려 있다.

이를 위해서, DKIST는 우선 지역에 소재한 각 대학의 지역협력연구센터(RRC), 기술혁신센터(TIC), 국가지정연구소(NRL)를 비롯한 이미 활동중인 수십 개의 지역혁신기관들을 모두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구개발 활동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DKIST 연구원과 지역대학 교수의 겸직 아이디어도 그래서 나온 것이다. 그렇다고 구성원간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의 연구비 배분조각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DKIST가 산업 연구기관인 만큼 기업들로부터 실효성을 인정받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분야는 발전하고, 산업현장으로부터 외면받는 분야는 추가적 연구비를 얻지 못해 차츰 소멸되는 적자생존의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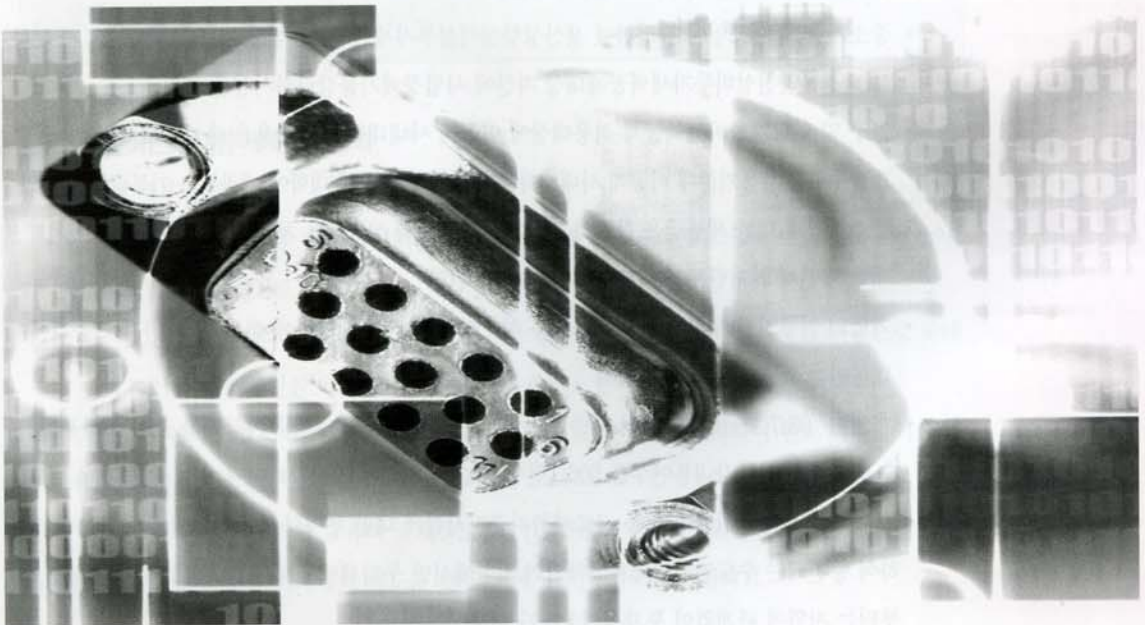
연구분야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필자는 현재 DKIST내 설치가 계획되고 있는 기술상업화센터(이하 TCC)의 역할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TCC의 수행과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가 필수적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동남권 지역 내부적으로 R&D 활동이 조달, 생산, 마케팅 등 가치사슬상의 타 부문과 긴밀한 연

계를 갖고 진행되도록 하는 Concurrent Engineering 체계를 구축하는데 선도역을 자임해야 한다. 둘째, 신기술 및 선진기술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외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글로벌 차원의 R&DB 활동을 지원해야 하며, 셋째, 세계적으로 수요의 개인화/다양화가 보다 심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제품수명주기와 제품기능 등에 기초한 체계적인 시장세분화와 더불어 공통의 공유기반을 구성하여 파생제품을 만들어내는 플랫폼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동남권 지역내 각 연구기관과 기업의 원천기술에 대한 선별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술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 자체개발 및 역외 아웃소싱 네트워크의 정보수집과 전과활동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비전과 과제를 살펴보면, 요즘 DKIST의 설립을 둘러싸고 '입지'와 '연구분야'에 집중된 지역의 관심은 DKIST의 설립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이 강하다. 입지는 행정구획간 조정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지리적 근접성을 전제로 한 산업클러스터의 구축과 동남권 R&DB(연구개발 및 사업화) 네트워크의 허브 설정에 초점을 맞추어 최적해를 찾아야 할 것이며, 연구분야 역시 글로벌 시장환경에 대비해 산업경쟁력 향상에 실효성있는 방향으로 결정하면 될 것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구분야는 초기에 특정 과제가 설정되더라도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기관들과 뿌리부터 다른 패러다임으로 시작한 DKIST는 새로운 사고와 행동을 요구한다. 비록 DKIST가 동남권의 R&DB 허브를 지향하고 있지만, 설립 초기단계에서 안정적 기반을 다지기까지는 대구와 경북이 상생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대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평도 놓치고 알도 깨지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관련 연구보고서에서 늘상 언급되는 프랑스 소피아앙티폴리스의 성공요인과 대만의 신주단지내 ITRI(공업기술연구원)의 기능을 개념적이 아닌 실질적인 눈으로 벤치마킹해야 한다. 이것은 대구와 경북의 경제 재도약을 염원하는 지역민의 바람이다. ❖



2004년 주요세법 개정내용

대구지방국세청 납세홍보계

2004년에는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이 강화되고, 농어민·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되는 한편,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대폭 강화된다.

1.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 기업이 '03.7.1부터 '04.6.30까지 설비투자하는 경우 투자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15%로 상향조정하고 적용기한도 '04.6.30까지 6개월 연장됨
- 법인세율을 '0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 부분부터 2%p씩 인하
 -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 : 27% → 25%
 - 과세표준 1억원 이하분 : 15% → 13%
- 중소기업 및 제조업에 한정하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대상을 모든 내국인으로 확대하고 환경·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사업장폐기물감량화시설을 추가
-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이공계 사내대학 운영비용을 추가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이공계 사내대학운영비용 및 이공계 대학에 제공하는 기부금품을 추가
-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고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2%에서 10%로 인하
-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대기업의 경우 석·박사 인건비 해당분에 한함)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
- 기업이 '03.7.1~'04.6.30 기간 중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투자금액을 조기에 비용화할 수 있도록 감가상각내용연수를 50%(현행25%)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 등 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 대한 투자와 중소기업의 대체투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만 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되고 있으나 '04.1.1 부터는 지역에 관계없이 투자세액공제가 허용

-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배당금액을 소득공제 받게되는 회사의 범위에 선박투자회사를 추가하여 해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동산의 산업자본화를 유도
 - 인턴사원의 해외파견비용 및 정규직 전환후 1년간 급여에 대하여 7%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턴사원 해외파견비세액공제제도를 신설
-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 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 과세체계를 단순화하여 총급여액에 단일세율인 17%를 적용하거나 현행 과세절차에 따라 각종 공제를 한 후 '기본세율(9%~36%)'을 적용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지방세 등을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하고, 관세도 3년간 면제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해외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에 대하여 적용되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을 외국자회사의 총발행주식 50% 이상을 보유한 내국법인에 대해서만 적용하였으나 '04.1.1이후 부터는 25%이상을 보유한 내국법인으로 확대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

내국법인이 해외투자에 따라 외국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 중 지급받은 배당에 대응하는 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는 제도

2. 근로자·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
-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급여액 500 ~ 1,500만원 구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현행 47.5%에서 50%로 확대
 -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되고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현행 50%에서 55%로 확대
 -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현행 500만원)를 폐지하여 한도 제한없이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자녀 등에 대한 대학생 교육비 공제한도를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
 -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식사대의 한도를 월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하고

- 연간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하여는 예식비·장례비·이사비 비용 지출 시 각각 연 100만원씩 소득공제 허용
 - 여성의 출산과 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의 대상을 여성근로자에서 사업자·근로자로 확대하고, 공제금액도 연50만원에서 연100만원으로 상향조정
 - 영·유아교육비 공제한도 확대(연150만원→연200만원)
 - 영·유아보육비, 출산수당 등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월 1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60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 차입금의 상환기간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15년 이상(거치기간은 3년 이하)으로 조정
 -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1일당 5만원(유류대·재료비 별도)씩 기부금 소득공제 허용
-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DDA협상 및 FTA체결 등으로 농어업 시장이 추가 개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어업의 손실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농특세 적용기한을 '14.6.30까지 10년간 연장
 - 농어촌 지역 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연간소득 1,200만원 범위내에서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에 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 판매수입과 전통차·전통주 제조수입을 추가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범씨발아기·범씨재배 소독기·탄산가스 발생기 등을 추가

3. 조세의 형평성 제고

-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 도입
- 민법상 증여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 타인에게 사실상 재산을 무상이전하거나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도록 함으로써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통한 세금 없는 부의 세습을 차단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관련세제 개선
-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의 10%~30%)를 적용배제하고,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0%의 양도세율로 과세
- ※ 단, 2004.12.31이전에 신규주택 취득없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 적용(1년 유예)
- ※ 대상주택 : 수도권·광역시소재 주택(군지역 등 제외), 기타지역은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

- 1세대 2주택 이상자의 투기지역내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탄력세율(15%P 범위내)을 우선 적용하여 증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
- ※ 탄력세율은 향후 주택시장 동향을 종합 분석·판단하여 필요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적용
- 개인 부동산매매업중 주택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1세대 3주택 이상자에 한함)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율(9%~36%)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양도세 증과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
- ※ 단, 2004.12.31이전에 신규주택 취득없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 적용(1년 유예)
 - 단기보유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을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36%에서 50%로 인상하고, 1~2년간 보유한 경우에도 9%~36%에서 40%로 인상
 - 서울·과천·5대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강화하여 3년 이상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에서 3년 이상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로 강화
- 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
 - 복권당첨금 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소득세율을 20%에서 30%로 인상함(5억원 이하분은 종전과 같이 20%세율 적용)
 -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보험유지기간 7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됨

4. 납세편의 및 세원투명성 제고

- 소득세 중간예납 및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의 경우 고지세액 50만원 미만인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발송 가능토록 함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전자신고로 하는 경우 표준대차대조표·표준손익계산서 등 부속서류도 전자신고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서면 제출의무 면제)
-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본·지점간 정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서 50일로 연장
-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와 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생략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여 법인세·소득세의 경우 2만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의 경우 1만원을 세액공제하고
 -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이 고객의 소득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모두 전자신고하는 경우 납세자 1인당 1만원(연100만원 한도)씩 세액공제 허용
-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법인세 신고서류를 간소화하여 현행 법인세 신고시 제출서류에서 이익

잉여금처분계산서를 제외

- 2년 이상 경과한 체납액이 10억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조세범으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에도 탈세제보에 의한 추정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분식회계후 경정청구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즉시 환급하지 않고, 경정청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5년 이내의 사업연도에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함
-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현금흐름표를 제출하도록 함
(※미제출 가산세는 없음)
- 지출증빙서류를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영수증으로 수취·보관하여야 하는 대상을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에서 5만원 초과거래로 확대

5. 기타 주요 제도 변경사항

-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을 통해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적용받는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율을 결제금액의 2%에서 1%로 인하
- 신용카드소득공제 대상에 기명식신불카드를 추가하고, 소득공제율도 카드의 종류에 관계없이 20%로 일원화
- 납부고지서에 의해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금을 현행 5%에서 3%로 인하하고,
 -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에 대한 사업자미등록가산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도 1%로 인하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
(리모델링 후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여도 종전 규모의 120%이내인 경우에는 면세)
- 이자소득이 비과세되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저축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을 종전의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소유자에서 세대주이면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자로 축소함
-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에 대한 과세 특례를 확대하여 소액주주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의 액면가액이 5천만원~3억원 미만의 경우 세율을 10%(분리과세)에서 5%로 인하함
- 지정기부금 대상에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교육재단·산학협력단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추가하고,

- 기부금 중 손급산입한도초과액은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

- 재건축조합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03.7.1이후에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의제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도록 함(조합원 분양분은 법인세 비과세)

※ '03.6.30이전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조합은 종전과 같이 소득세법 적용 가능





통화정책의 과제



이성태 | 한국은행 부총재



편집자 주 : 2003년 12월 12일(금)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개최된 본원 「제164차 월례세미나」의 발표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SEMINAR

1. 기본 개념

□돈의 흐름을 조절

- 적지도 많지도 않게
- 필요한 곳에 골고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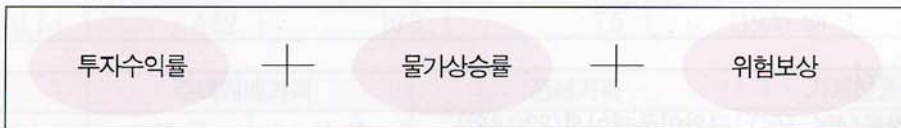
□돈의 쓰임새 (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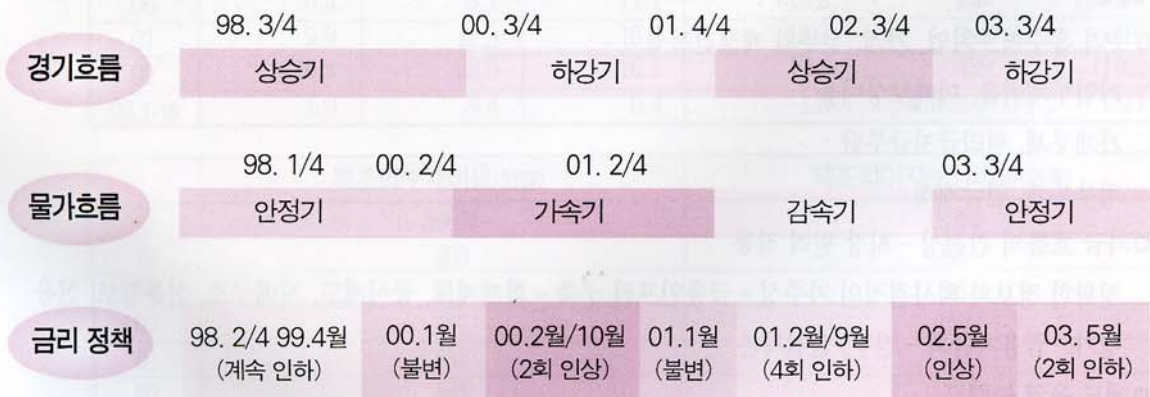
□지표

- 금리
- 통화량

□금리의 구성요소 (표2)



2. 지난 5년간 실적





□ 금융시장 상황

- 대우 사태(99년 7월)
- 현대그룹 불안(00년 봄)
- 9.11 테러(01년 9월)
- 가계부채 증가 가속(01년 봄부터)
- 강남 아파트 투기(02년 봄부터)
- 카드회사 신용 추락(02년 가을부터)

3. 평가

□ 금리 변경 방향과 시기

- 99년 하반기 - 금리 인상 없었음
- 00년 봄과 가을 - 0.25%씩 2번 인상
- 01년 9.11 - 0.5% 일거에 인하
- 02년 봄 - 0.25% 한 번 인상
- 03년 봄

※ GDP GAP : 효과 파급 시차

□ 금리 수준

- 장기 균형 금리
- ※ 잠재성장률(4%, 5%), 근원인플레이션(3%내외)

4. 과제

□ 충격 흡수력 - 기업, 가계, 정부의 재정건전성

- 기업부채비율, 이자보상비율
- 가계부채, 원리금지급부담
- 정부부채, 연금재정

□ 자금 흐름의 건전성 - 시장 원리 작동

- 정확한 정보와 의사결정의 자주성 - 금융인프라 구축 - 회계제도, 공시제도, 지배구조, 신용정보, 신용
- 평가 - 금융자율화 - 정부, 산업자본

□ 제도 운영 능력

SEMINAR

정책 운영자

금융 종사자

언론, 정치권, 산업계, 사회단체 등 ❖

주요 경제 지표

	GDP	소비	건설	설비	수출	CPI(근원)	BOP
98년중	-6.7%	-10.1%	10.1%	38.8%	2.8%	7.5% (5.9)	404억\$
99	10.9	9.4	10.3	36.3	8.6	0.8(0.3)	245
00	9.3	6.7	-4.1	35.3	19.9	2.3(1.9)	122
01	3.1	4.2	5.3	-9.6	-12.7	4.1(3.6)	82
02	6.3	6.2	3.3	6.8	8.0	2.7(3.0)	61
03	3					3	100

	국고채금리	M3		M1		환율/\$	종합주가지수
		증감율		증감율			
98년중	12.89%	13.9%	-3.65	1395원	-38.0%		
99	7.69	11.3	29.6	1189	98.7		
00	8.30	5.6	24.5	1131	-9.0		
01	5.68	9.6	18.0	1291	-22.0		
02	5.78	12.9	22.5	1251	32.2		
03.1-9	4.52	10.3	7.5	1192(1-10)	-17.8		

	주택매매가격		전세가격		가계신용(여신전문)	
	전 국	서 울	전 국	서 울	기말잔액	
98년간	-12.4%	-13.2%	-18.4%	-22.7%	184조원	(24조원)
99	3.4	5.6	16.8	22.2	214	(32)
00	0.4	3.1	11.1	13.8	267	(55)
01	9.9	12.9	16.4	18.7	342	(79)
02	16.4	22.5	10.1	10.8	439	(102)
03.1-10	7.0	8.4	0.4	-1.5	439(03.6)	(81)

	제조업부채비율(연말)	제조업이자보상비율(연중)
97	396%	129%
98	303	68
99	215	96
00	211	157
01	182	133
02	135	260

미국의 대학과 전문대학의 공생



황남성 | 영남이공대학 기계과 교수

우리 나라 대학의 문제가 이제 곧 표면화 될 것이다. 절대 학생수의 부족에 시달리는 우리 나라의 대학은 이제 학생자원의 부족으로 문을 닫는 대학이 생길 것이라는 것이다. 기업의 부도와 대학의 부도는 닫는다는 면에서는 같은 내용이다. 하지만 사회적 파장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의 설립자와 그들의 이사들은 이미 국회로 진출하여 대학파산법을 제정하여 대학은 망하여도 설립자는 그 땅과 건물을 고스란히 돌려받게 된다. 결국 이 과정에서 교직원들은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도 있다. 학생들은 다른 주변의 대학으로 전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문제가 다소 적어질 것이다.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대학의 부실화와 부도로 이어지는 파국은 결국은 국가정책의 실패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대학설립준칙주의라는 것을 내세워 법이 정한 테두리에 들어온다면 기존의 대학의 존립과 관계없이 대학의 설립을 인가하였던 제도의 병폐가 그 원인이기 때문이다. 물론 기존의 대학들이 신생대학에 비해 대학에 대한 투자를 적게 하고 있는 것도 그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이러한 대학의 파동을 겪은 바 있는 미국은 어떻게 그러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갔고 나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우리가 당면할 문제를 해결하는데 타산지석이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도 완전히 이러한 문제에서 독립적이라고 생각하기는 이른 것 같다. 아직도 많은 대학들은 학생자원의 모집에 매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의 이름을 달고 외국학생들에게 유혹의 시선을 보내는 대학같지 않은 대학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지역에 사는 분들의 조언을 확보한 후 유학에 나서야 할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1. 미국의 대학의 특징

일반적으로 미국의 대학을 살펴보면 미국의 대학은 종합대학(University)과 대학(College)으로 구분이 된다. 또한 칼리지는 주니어 칼리지(Junior College)와 커뮤니티 칼리지(Community College)로 구분이 되는데 그 차이는 직업교육이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즉 커뮤니티 칼리지는 대학의 편입과 직업교육을 동시에 병행하는 곳이다. 미국의 대부분의 2년제 대학은 커뮤니티 칼리지이다.

우리 나라의 전문대학은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와 그 성격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커뮤니티 칼리지 졸업자들은 전직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적은 비용으로 취업을 원하거나 취미를 위해 지역주

미국의 대학은 전문대학과 재정이나 편입부분에서 공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우리 대학들은 이제 무한 경쟁의 시대에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발굴 육성하고 앞서 지적인 사형에 의거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길만이 유일한 대학생존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만들이 많이 수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미국 대학의 존립의 비결

미국은 대학이 많기로 유명하지만 많은 대학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살아남는 것은 바로 미국이라는 국가가 가지는 특징을 이해해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사실 미국이 이루어진 것이 영국의 청도교들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시작된 것이고 이를 각 대학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1) 입학전문가 활용

우리 나라에서 시급히 활용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바로 입학마케팅 담당자들의 활용인 것이다. 각 대학은 입학관련을 담당하는 입시처를 1년내내 운영을 하면서 각 전문대학에 편입에 대한 안내를 맡고 있으며 동시에 전문대학들은 각 고등학교에 주기적으로 학생들을 상담하고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대학을 홍보하는 기회를 갖고 있다. 이런 활동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학교와 선생님을 활용한 간접적인 노력에 머물고 있다고 보는데 전문가들을 초빙하는 것도 좋은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은 종신고용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입시팀자체를 교체할 수도 있다.

2) 외국 대학생의 유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5~10%의 학생들이 외국인 학생으로 채워진다. 이 수치는 미국에 사는 영주권자(permanent resident)와 시민권자(US citizen)를 제외한 수치이다. 앞서 설명한 입시 전문가들은 외국여행 계획을 수립하고 학생자원의 확충에 노력을 다 하고 있다.

3) 저렴한 학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문대학이라는 커뮤니티 칼리지는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내는데 학교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East LA대학은 미국시민의 경우는 학점당 11불에 불과하고 타주에서 온 학생은 152불 그리고 외국인인 162불의 학점당 수업료를 내며 건강비로 11불을 낸다.

4) 활발한 편입과 정부의 지원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는 편입을 지원하기 위해 편입담당부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역의 UC

표 1 East LA College에 입학하는 외국인의 수(1997~2001)

**Top30 Feeder Countries
Contributing to Enrollment
Five-Year Trend**

	1997	1998	1999	2000	2001	Total
Mexico	222	110	169	147	177	825
China	248	163	110	119	109	749
Taiwan	66	69	93	65	57	350
Hong Kong	51	51	37	48	43	230
Vietnam	48	45	40	49	48	230
Philippines	62	31	34	24	19	170
El Salvador	21	15	24	19	17	96
Burma	12	14	21	5	8	60
Guatemala	15	8	9	10	11	53
Japan	16	7	9	13	5	50
Peru	21	7	5	6	8	47
Nicaragua	8	9	10	4	7	38
Kuwait	1	5	9	13	4	32
India	9	7	10	1	2	29
Colombia	14	3	8	0	3	28
Thailand	9	7	3	4	3	26
Canada	6	2	6	6	5	25
South Korea	6	5	7	3	3	24
Indonesia	7	4	2	4	6	23
Honduras	8	5	2	3	4	22
Ecuador	7	3	3	4	4	21
Iran	9	4	1	1	2	17
North Korea	3	5	1	1	6	16
Argentina	2	3	3	3	4	15
Jordan	5	6	0	1	3	15
Macao	1	0	2	4	6	13
Singapore	1	3	2	3	3	12
Cambodia	4	1	3	3	0	11
Brazil	4	3	2	0	1	10
Malaysia	1	3	2	3	1	10
All Other Countries	92	76	42	35	32	277

NOTE : Students new to East Los Angeles College

Source : LACCD DEC, SIS Tables : STUD_SEMC_ and Z_SCHOOL_HIGH_INFO, 11/02.

표 2 East LA College 입학생의 취업과 편입의 비율

Educational Goal

Percentage

	Vocational	Transfer	General Education	Transitional	Unknown/Undecided
1997	36.0%	28.7%	8.3%	7.3%	19.7%
1998	32.3%	27.3%	7.2%	7.5%	25.6%
1999	29.8%	26.6%	7.0%	6.6%	29.9%
2000	29.3%	24.3%	7.3%	6.1%	33.0%
2001	32.9%	26.9%	8.6%	6.3%	25.2%

Number of Students

	Vocational	Transfer	General Education	Transitional	Unknown/Undecided
1997	5,838	4,661	1,346	1,192	3,192
1998	6,039	5,111	1,345	1,410	4,796
1999	6,843	6,101	1,611	1,515	6,861
2000	7,504	6,232	1,861	1,568	8,471
2001	7,999	6,542	2,080	1,542	6,135

Source : LACCD DEC, SIS Table : STUD_SEMC, 12/02

계열 대학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주정부의 예산배정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하고 있음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따라서 많은 우리나라의 대학이 국립 혹은 공립화 해야한다는 것이 본인의 의견이다. 물론 대도시의 경우는 재정적인 부분에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이다.

East LA College의 경우는 2001년 조사에 의하면 약 26.9%가 편입을 희망했고 32.9%는 취업을 희망했다. UCLA의 경우를 살펴보면 약 30~40%의 3학년 학생이 편입생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커뮤니티와 주니어칼리지 학생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3. 미국대학의 사례를 통해 우리 대학이 배울 점

지금까지 미국대학의 존립을 위한 노력과 우리나라 대학이 배워야 할 점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미국의 대학은 전문대학과 재정이나 편입부분에서 공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우리 대학들은 이제 무한 경쟁의 시대에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발굴 육성하고 앞서 지적한 사항에 의거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길만이 유일한 대학생존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

인생을 두 배로 사는 인간, 아침형 혹은 저녁형?

연초에는 누구나 이런 저런 계획들을 많이 세운다. '올해에는 꼭 결혼을 해야지', '영어를 마스터 해야지' 등 대부분 삶의 변화를 주기 위한 계획들이다. 하지만 이런 계획들을 실천하기 위해 무리하게 일정을 잡다 보면 대부분 오래 버티지 못하고 재풀에 지쳐 작심삼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만약 올해 어떤 변화를 원한다면 "아침에 보통 몇 시에 일어나세요?" 혹은 "보통 몇 시에 주무세요?" 라는 질문에 정확히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당신이 저녁에 일하는 올빼미형인지 아침에 일하는 종달새형인지에 따라 당신의 모든 일정들도 생체리듬에 맞게 적절하게 조정되어야 연초의 모든 계획들을 실행에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는 「인생을 두 배로 사는 아침형 인간」의 일본인 저자 사이쇼 히로시는 아침 시간의 중요성을 가장 강조한다. 부지런한 종달새형이 성공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야행성 생활이란 단지 현대 사회가 유발한 심각한 사회적 병리 현상일 뿐이라는 것. 그래서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는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저녁 시간을 줄이고 아침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쟁력을 키우라고 그는 조언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올빼미형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영국의 마케팅 컨설턴트 레온 크라이츠만은 그의

저서 「24시간 사회」(2001년)에서 영국의 성인 가운데 42%가 중달세형, 34%가 올빼미형으로 스스로를 여기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또한 국내 일부 한의학자들에 따르면 사상의학에 따라 체질적으로 올빼미형과 중달세형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한다. 즉 소음인이나 태음인은 아침에 강하지만 소양인, 태양인은 오전 10시가 넘어야 활기가 난다고 한다. 영국의 아처 교수팀도 수면 패턴은 유전적 차이 때문에 달라진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일찍 일어나는 사람과 늦잠꾸러기의 차이는 'Per3' 라는 유전자의 길이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으로 수면 패턴이 단순히 습관의 문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의 이론이 맞다면 모든 사람들이 사이쇼 히로시의 주장처럼 아침형 인간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

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의 몸은 다른 생물과 마찬가지로 주기적인 변화를 한다고 한다. 주변 자연환경에 따라 변화되기도 하지만 우리 몸의 내부에도 '생체 시계' 라는 일종의 시계 비슷한 것이 있어서 시간에 따른 인체의 생체 리듬을 주관한다는 것이다. 이 생체 시계의 특이성은 고정된 외부 환경에서도 리듬이 유지되는 것으로, 1729년 프랑스의 천문학자 드 마랑이 실험에서 식물을 어두운 지하실에 옮겨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잎사귀가 하루 주기의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 몸에서 시계 역할을 하는 부분은 약 100여 곳이 알려져 있고, 거의 모든 기관과 조직 그리고 많은 세포내에 내부의 시계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

여지고 있다. 이들 시계는 서로 동기화(Synchronize) 되고, 또 함께 조절되어야 하는데 이 역할을 하는 주된 내부의 시계가 두 개 있다. 하나는 뇌의 내측 시상하부 구역의 교차위핵(suprachiasmatic nucleus; 이하 SCN)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 위치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작용이 체온과 의식을 조절하는 시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SCN은 밤, 낮의 변화에 관련된 호르몬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내부 시계들의 작용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또한 SCN은 송과선(pineal gland)에 연결되어 자극을 전달하는데, 이 송과선은 밤중에 멜라토닌(melatonin)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시각 장애자나 장거리 비행여행 뒤에 찾아오는 불면증(jet lag)의 치료를 위해서 멜라토닌을 투여하기도 한다고 한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오늘도 열심히 돌아가고 있다. 새해에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체 시계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혹은 맞출 것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생체 시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맞춰진 시계가 아니라 일상적인 기상시간을 기준으로 사람들마다 각기 다르게 맞춰진다고 한다. 스스로 체온이나 피로감, 배변, 수면 등의 주기를 꼼꼼히 관찰한 뒤 몸과 기분이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는지를 파악해서 자기 신체 리듬에 맞는 신년 설계를 한다면 보다 알찬 계획과 실천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다. ❖

(출처: <http://scent.kisti.re.kr>)



김정길
매일신문 부사장

지방분권은 지역민 스스로가 법익을 챙겨내는 현실적 노력이 필요

☞ 늦었습니다만 산학경영기술연구원 전회원을 대표하여 제4회 TBC 자랑스런 대경인상 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3회에는 본원도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만, 수상소감을 부탁드립니다.

초등학교 이후 받은 몇 가지 상(賞)중에서 가장 과분하고 분에 넘친 상이라 송구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 33년간 언론인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언론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각종 번역서 및 시집발간 그리고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대구 문화예술관장도 역임하셨습니다. 어떻게 두 분야에서 훌륭한 공적을 쌓게 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활동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언론쪽 일만 해오다 예술회관 일을 맡게된 것은 당시 前 문화잡 대구시장님이 공석중이던 관장직을 맡아보라는 고마운 권유가 있어 언론사 문화사업국장 경력을 작은 경험삼아 맡게 되었습니다. 2년간 공직자의 본분에 충실하자는 생각에 나름대로 노력하였습니다. 활동계획은 다시 언론사에 돌아와 있는 만큼 신문사와 지역의 독자 여러분이 허락만 해주신다면 계속 글을 쓰고 싶은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 지난 80년부터 매일신문에 「수암칼럼」이라는 제목으로 주 1회 지역현안에 관한 칼럼을 집필하시고 계시는데 현재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지역의 가장 큰 이슈는 경제회복과 정치적 정서변화가 아닌가 여겨 집니다. 경제회복은 국가경제, 세계경제와 맞물리겠지만 지역민이 좀 더 생산적인 경제의식과 경제활동에 힘을 합쳤으면 합니다. 소위 "제2경제"의 생활화가 덜 된 곳이 우리 지역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외제차 과소비나 백화점 소비문화 등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치적으로는 이번 총선이 지역의 정치적 정서 변화에 계기와 자극을 줄 것이라 보지만 어떤 형태로든 지역의 정치적 위상의 재자립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수암칼럼」에서 수암(修菴)은 부사장님의 아호(雅號)로 알고 있습니다. 아호(雅號)는 문필가나 예술가들의 인생관과 취향 등을 내포한다고 합니다. 수암(修菴)이 어떤 뜻을 담고 있습니까?

아호(雅號)라기 보다 업무상 필요해서 쓰는 필명(筆名)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필명을 지어주신 분의 말씀으로는 조용히 문헌하며 자신의 마음, 정신, 덕음을 닦는다는 의미라는데 제대로 필명 뜻대로 못 지내는 것 같습니다.

☞ 지난해 연말에 3대 지방분권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 제정이 곧 지역발전의 담보는 아닐 것입니다. 이에 관한 고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상에는 수많은 법이 있고 모든 가치의 바탕에는 법대로 하는 것이 정의라는 논리와 명분이 깔려 있지만 모든 법은 언제나 현실적인 한계 즉, 모든 예외 중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법제정이 됐으니 모든 것(지방의 권리)이 스스로 풀리고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어리석고 위험한 사고라 봅니다. 지방분권은 결국 지역민 스스로가 법익(法益)을 챙겨내는 현실적 노력과 투쟁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 2002년에는 매일신문사와 본원이 공동으로 기획하여 「대구·경북 2011 뉴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지역의 주요 이슈들을 연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지방분권화시대에는 지역의 유관기관들의 공동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사장님의 견해와 함께 본원의 발전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귀원의 지역분권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은 지역민들의 신뢰와 깊은 호의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역의 어떤 기관, 단체, 개인이든 귀원의 뜻에 동참하고 함께 손잡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

대 담 : 최만기 본원 원장(계명대학교 경영대학장)

일 시 : 2004년 1월 13일(화) 11:00

장 소 : 매일신문사 부사장실

연락처 : 053)255-5001~7

www.m2000.co.kr



제164차 월례세미나 개최

지난 12월 12일(금) 07:30~09:30까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강당에서 「통화정책의 과제」라는 주제로 제164차 월례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성태 한국은행 부총재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제139차 이토회 개최

지난 1월 10일(토) 오후 3시 앞산에서 제139차 이토회를 가졌다.

영구회원 가입을 감사드립니다



■ 한성덕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생년월일 : 1949. 3. 14
- 주소 : 경북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15
- TEL : 053)850-6322

신입회원을 환영합니다



■ 이민구

- 세무사이민구사무소 대표
- 생년월일 : 1958. 4. 9
- 주소 : 대구시 달서구 두류3동 493-3 성호빌딩5층
- TEL : 053)655-0655

회원동정



■ 권상진

권상진 한국BBS대구시연맹 회장은 BBS운동 100주년을 맞아 1월 13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신년교례회를 개최



■ 김시길

김시길 (주)엘칸토 사장은 (주)월드크 대표이사로 취임



■ 김용준

김용준 영남이공대학 인터넷비즈니스과 교수는 12월 21일 ~ 28일까지 일본 북해도 일원의 무오란(室蘭) 국립공업대학, 북해학원대학, 북해도 자동차 단기대학 및 북해도립 공업시험장 기술지원센터 등을 해외연수차원에서 방문



■ 남성희

남성희 (사)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공동대표(대구보건대학장)는 1월 10일 경북대 복현회관에서 대구를 방문한 커스티 스위드 구스마오 동티 모르 대통령 영부인을 맞아 대구여성

지도자들과 함께 「혼란과 변혁의 시대의 여성의 역할」을 주제로 간담회 개최



■ 이인중

이인중 화성산업(주)동아백화점 대표이사는 12월 26일 「불우이웃 돕기 첫걸 바자회」 수익금 398만원을 (사)전국주부교실 대구광역시 지부에 전달

- 29일 「사랑나눔 자선바자회」 모금액과 백화점 직원 및 회사에서 낸 성금 3천만원을 이웃돕기성금으로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
- 1월 14일 시청에서 열린 대구시 이웃돕기성금 전달식에 참석해 후원대상자에게 후원금 200만원을 전달

■ 이재녕

이재녕 대구시 남구문화원장은 새해 1월 1일 일출 때 「산



성산(앞산) 정상에서 남구 주민과 함께 희망찬 새해를 기원하는 「2004 앞산 희망의 해맞이」 행사를 주관



■ 조만현

조만현 동우씨엠(주) 대표이사는 12월 22일 대구 문화웨딩연회장에서 소속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내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5주년 경영성과 보고 및 모범학생 장

학금 수여식을 가짐



■ 조명희

조명희 경일대학교 도시정보지적공학과 교수는 전국 최초로 가로등을 관리하는 「가로등 정보 관리시스템」 개발에 성공. 이 시스템은 그동안 보

편적인 지도에 담을 수 없는 다양한 정보를 전자지도에 담고, 나이가 원격 제어까지 영역을 확대한 신기술임



■ 조재룡

조재룡 (주)한국중소기업컨설팅 대표이사는 구영테크(주) 중기청 지원 TS16949 인증 획득지도 완료 (DAS-IC 국제인증원)

- 1월 9일 ~ 12일 대만 중소기업

공장핵심 및 품질인증지도 협의 출장

- 중소기업청 지원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실시 (ISO 14000, QS 9000, TS 16949외)



■ 최성해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은 1월 15일 모교인 대구고등 장학사업과 경북북부지역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구고등창회(회장 정진용)가 수여하는 '2004 자랑스런 대고인상(大高人賞)'을 수상



■ 홍사현

홍사현 (사)항일독립운동기념탑 건



회원동정

립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주)성우펜스 회장직을 연말에 사임하고 2004년부터 선열의 고귀한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기 위해 기념탑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일독립운동기념탑 건립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 선임



■ 황대현

황대현 대구시 달서구청장은 1월 14일 서울 웨라톤그랜드워커히호텔에서 열린 제13차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회의에 참석



■ 김극년

김극년 본원 고문(대구은행장)은 1월 13일 65세 이상의 무의탁 노인들이 거주하는 북구 태전동 복음양로원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 14일에는 대구시청 민원실에 설치된 「이웃사랑

창구」를 찾아 후원금을 전달



■ 신일희

신일희 본원 고문(계명대학교 총장, 한국·폴란드협회장)은 1월 27일 폴란드 대통령 초청으로 한국·폴란드협회 회원 40명과 함께 폴란드 대통령궁 방문을 위해 출국, 2월 1일

귀국



■ 조해녕

조해녕 본원 고문(대구광역시장)은 1월 15일 열린 지방행정동우회 대구광역시지회(지회장 도재호) 신년교례회에 참석, 시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 17일 대구시 서구 비산동 북부정류장 부근 쪽방들을 찾아 쪽방거주자들과 만나 위문품을 전달하고 위로



■ 최용호

최용호 본원 명예원장(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은 12월 2일 TBC 문화재단의 “자랑스러운 大慶人賞” 수상자 심사

- 9일 대구·경북 지역혁신연구회의 제 1차 워크샵
- 11일 대구경북개발연구원의 연구자문교수회의
- 16일 '대구경북 지역혁신체제 구축세미나'에서 토론 사회
- 17일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정책비전' 자문단 회의
- 22일 대구지역공정거래위원회 주재
- 24일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제80차 이사회
- 27일 중국 천진의 남개대학교에서 열린 '중국경제와 금융발전' 포럼에서 「지방금융과 중국의 경제발전」을 발표
- 29일 천진시 도시계획설계연구원과 천진시 토지정리센터, 천진시 북방人材港(주) 방문



■ 구정모

구정모 본원 부이사장((주)대구백화점 대표이사)은 1월 15일 그랜드호텔에서 진행된 불우이웃돕기 월드비전 조찬기도회에서 월드비전측에 직원들이 모은 285계좌 684만원 후원

신청서를 전달



■ 진영환

진영환 본원 부이사장(삼익 LMS(주) 대표이사)은 산업자원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지원하는 대구·경북지역 40여 개 중소기업체 CEO모임인 KPC-CEO포럼의 회장

에 선임

축하합니다

- 김재성 前대구은행 상무 차녀 결혼 : 2004년 1월 31일 (토) 오후 1시 30분 서울 힐튼호텔 그랜드볼룸
- 정훈 (주)우산 대표이사 장남 결혼 : 2004년 2월 8일 (일) 오후 1시 대구 인터볼고호텔 컨벤션센터



단행본 및 연구보고서

- 산업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재단, "2003 테크노포럼21 기술인력 포럼-산업기술인력양성 정책의 현황과 과제", 2003. 10. 28
- 산업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재단, "2003 테크노포럼21 기술인력 포럼-Washington Accord와 공학인력양성", 2003. 11. 11
- 산업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재단, "2003 테크노포럼21 기술인력 포럼-2003년 산업기술인력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2003. 12. 2
- 삼성경제연구소, "수소에너지 혁명을 주도하는 연료전지", 2003. 12. 31
- 삼성경제연구소, "2004년 해외 10대 트렌드", 2004. 1. 14
- 세계경제연구원 · 한국무역협회, "침체된 독일 · 유럽 경제가 주는 정책적 교훈과 시사", 2003. 11
- 세계경제연구원 · 한국무역협회, "동아시아 금융협력과 한국", 2003. 12
-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연구", 2003. 12
- 한국금융연구원, "담보대출제도에 관한 연구", 2003. 12
- 한국금융연구원, "고객주의의무 도입방안 연구", 2003. 12
- 한국금융연구원, "잠재성장률 및 성장잠재력의 추이와 시사점", 2003. 12
- 한국금융연구원, "Korea's Financial and Corporate Restructuring: Five-year Experience, Lessons and Tasks", 2003. 12
- 한국금융연구원, "중소기업 금융의 현황과 과제", 2003. 12
- 한국금융연구원 ·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한국경제의 분석", 2003. 8
-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섬유제품의 결점분석 및 해설", 2003. 12
- 한국은행 조사국, "자산가격 변동에 대응한 통화정책방향", 2003. 10. 30

정기간행물

- 대구경북개발연구원, "대구경북포럼", 2003. 11 · 12
- 대구경북건설직물공업협동조합, "섬유직물소식", 2004. 1
-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달서", 2004. 1
- 대구상공회의소, "대구 · 경북경제동향", 2003. 11
- 대구상공회의소, "대구 · 경북경제동향", 2003. 12
-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DYETEC VISION", 2004. 1
- 대한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 2004. 1
- 산학연융합센터, "산학정21", 2004. 1. 5
- 서울경제, "POPULAR science", 2004. 1
- 신용보증기금, "보증월보12", 2003. 12
- 열린전북, "열린전북", 2004. 1
-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 2004. 1
- 좋은 이웃집, "경제풍물", 2004. 1
- 증권거래소, "주식", 2004. 1
- 하나은행, "하나은행", 2003. 겨울
- 한국고속철도, "고속철도", 2003. 11 · 12
-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동향 분석과 전망", 2003. 겨울
- 한국무역협회, "무역", 2004. 1
- 한국발전연구원, "한국발전 리뷰", 2004. 1
- 한국산업기술재단, "KOTEF news", 2004. 1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기협 기술과 경영", 2004. 1
-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훈련정보", 2003. 겨울호
- 한국산업정보센터, "레이저기술", 2004. 1
- 한국산학협동연구원, "산학협동 인포", 2003. 12
- 한국산학협동연구원, "산학협동 인포", 2004. 1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장", 2004. 1
-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섬유개발연구", 2003. 11 · 12
- 한국수출입은행, "수은 해외경제", 2003. 12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대구 · 경북지역 경제동향", 2003. 11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2003. 12
- (주)서진, "서진소식", 2004. 신년호
- (주)푸드웰, "가실", 2004. 1 · 2
- (주)효성, "토프론 섬유", 2004. 1 · 2

연구원 소개 및 회원가입 안내

■ 연혁 및 현황

1990년 6월 지역의 학계 교수, 기업체 경영자, 기관 단체 장이 산학협동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일조하자는 순수한 취지로 산업자원부의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창립하였으며, 현재 46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이사장 : 정성진 국민대학교 총장
- 원 장 : 최만기 계명대학교 교수

■ 주요사업

- 산학협동 세미나 개최
- 산업시찰 실시
- 산학리뷰 발간
- 조사분석, 기술개발 연구
- 각종 개발계획 수립 등 연구용역 수행
- 경영자 및 임직원의 교육훈련
- 회원친선 교류사업

■ 회원가입 자격 및 회비

- 학계회원 : 국내외 학계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입회비 5만원, 연회비 7만원)
- 업계회원 : 기업체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 (연회비 80만원)
- 유관기관회원 : 금융기관,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장 (연회비 80만원)
- 유관개인회원 :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임원으로
로서 개인자격(입회비 5만원, 연회비 15만원)
- 연구회원 : 회비 일시납부 회원 (개인 100만원, 기관 1000만원)

■ 연구원 거래은행 계좌

- 대구은행 : 018 - 04 - 304943 - 001
- 예 금 주 : (사)산학경영기술연구원

- 본 연구원에 납부 또는 지원하시는 회비, 연구비 그리고 출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1항 1호에 의거, 지정 기부금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원고 및 광고게재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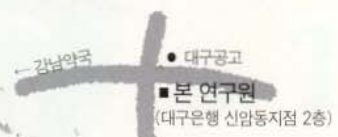
매월 3,000여 부를 제작·배포하는 본 산학리뷰지는 회원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적극적인 원고 기고 및 광고게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연구원 사무국 T.(053)959-2861~2)

■ 2004년 1월호 (통권 153호)

- 간 별 : 월간
- 등 록 번 호 : 대구리01089
- 등 록 일 : 1998년 6월 2일
- 발 행 소 : (사)산학경영기술연구원
- 발 행 일 : 2004년 1월 31일
- 발 행 인 : 정성진 (국민대학교 총장)
- 편집위원장 : 정인상 (경북대학교 교수)
· 한성덕 (대구대학교 교수)
- 편 집 위 원 : 김능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대구경북지원장)
김영재 (동국대학교 교수)
김용준 (영남이공대학 교수)
박규진 ((주)애드밸리 대표이사)
박진항 ((주)멀티애드메이저 대표이사)
이동형 (영남법무법인 변호사)
황남성 (영남이공대학 교수)
조정일 · 임재현 · 최영애 (상임연구원)
- 기획 · 편집 : 멀티애드(053-751-6562)



社團 産學經營技術研究院

UNIVERSITY-INDUSTRY RESEARCH INSTITUTE

701-814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3동 164-1번지
TEL.(053)959-2861~2 FAX.(053)959-2860
http://www.uri.or.kr
e-mail : uri@uri.or.kr

4년 동안 살만 찌우시겠습니까?

4년제,

그것이 내 인생의 감투도 명예도 자랑도 아니다.

더 알차게 더 효과적으로 나를 키워야 한다.

4년 보다 알찬 2년!

겨뤄보자 4년제

